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87)	봉헌 (512)	성체 (176)	파견 (102)
---------	----------	----------	----------	----------

### 미사 전례 예절

- 미사 중에는 조용하고 정중한 자세를 가집니다. 옆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다리를 포개서 앉는 것, 팔짱을 끼는 것 주보를 읽는 등의 해동을 삼가 합니다.
- 앉을 때는 등을 의자에 살짝 대는 느낌으로 앉습니다. 너무 등을 기대어 마치 눕는 듯한 자세를 하지 않습니다.
-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들의 정성이니만큼 깨끗한 금전으로 준비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봉헌을 하러 나가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은 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 미사 전에 미리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손을 다쳤거나 아이를 안은 사람은 입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면 됩니다.
- 주보 등 인쇄물은 성당에 두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보며 본당은 움직임과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6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13	유 요한	이 요한	황 스테파노
1/20	이 미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7	이 그레이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황 스텔라,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246	\$	\$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9	김 마론/ 김 헬레나
1/1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2/16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9	김 요아킴/ 고 안나	2/23	황 가롤로
1/2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3/2	손 아놀드/ 손 쟈마
2/2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2월 7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1월 7일(내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4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견진 성사 축하

시간: 1월 13일(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세인트 엘리사벳 성당

박은진 벨라벳다 자매님이 견진 성사를 받으십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감사의 마음과 눈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김하늘 세실리아 | 배우-

저는 작년 5월에 한 아기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가 될 때도, 그 이후 좋은 작품을 만나고 수많은 이들과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모든 인연은 항상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 때도 역시 하느님 뜻이 있으려니 믿고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한 생명을 잉태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9개월의 시간, 그런데 아기를 낳기 마지막 한 달은 저에게 정말 끔찍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산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매일 매 순간 목주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출산의 공포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행히 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며 하루가 어찌 가는지, 정신없이 아기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출산 전의 공포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 순간 감동 속에 또다시 하느님께 감사하는 시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복과 공포를 겪고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며 저에게 강하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생명의 끈입니다. 제 아기를 볼 때마다 나의 엄마도 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키웠겠구나.

엄마도 내가 이렇게 울 때 엄마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이젠 제 눈에서 엄마의 눈을 그리고 아빠의 눈을 느낍니다. 그러면 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사랑으로 날 낳아주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아기를 낳고 어른이 되어도, 훗날 제가 할머니가 되어도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제 아기를 보는 지금의 마음이란 같겠다는 것을... 그래서 하느님도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 깊이 느껴져 저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하루는 아기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목주기도 중에 고통의 신비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도 깊이 와 닿지 않던 기도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하게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늘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기를 통해 내리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느님!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그래서 저는 결심해봅니다. 제가 받은 사랑만큼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느님께 감사의 사랑을 드려보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해보자고! 오늘 또 다짐해봅니다. 새해엔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딸이 되어보자고!